



듀얼 머플러·격자 라디에이터 등 외관 스포티함 강조
소리·진동 없는 승차감 세단급...연비는 다소 떨어져

■ '터보 GDI' 엔진 바뀌 단 기아 '스포티지R' 타보니...

순식간에 100→140→180km '가속성능 굿'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에서 생산되는 '스포티지R'이 강해졌다. 심장(엔진)을 '터보 GDI'로 바꿔 달아 디젤보다 힘이 더 세졌다. 기존 가솔린 직분사 방식에서 터보 직분사로 바뀌면서 주행 성능과 승차감도 한층 업그레이드 됐다.

기아차 광주공장의 아침작이자 한층 강해진 '스포티지R 터보 GDI'를 24일 오후 화순에서 달려봤다. 은빛 실버 컬러의 터보 스포티지R을 기아차 광주공장~나주 남평~화순 도곡~담양 고속도로까지 150km를 달려왔다.

2011년형으로 바뀌면서 차량 내부 디테일이 한층 고급스러워졌다.

듀얼 머플러, 격자무늬 라디에이터 그릴 등을 통해 기존 모델과 외관을 차별화해 강력한 성능에 어울리는 스포티함이 강조됐다. 앞자리 의자 뒤 그물망 소재가 인조자극으로 바뀐 점도 눈에 띈다. 파워윈도우 스위치 패널과 자동변속기 기어노브에 메탈 페인트 재질로 한껏 고급스러움이 느껴졌다.

운전석에 앉았다. 시동 버튼을 눌렀다. 조용했다. 중대형 세단에 근접했다는 느낌이 든다. 풍절음과 진동 면에서도 디젤차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안락했다.

시동 직후부터 운전대(히트드 스티어링 휠)가 따뜻해졌다.

기아차 광주공장을 출발, 가속페달을 밟자 부드럽게 차가 나갔다.

가속페달에서 발을 떼어도 운전자가 설정한 주행 속도를 자동으로 유지시켜 주는 '크루즈 컨트롤', 스티어링 휠의 높낮이는 물론 전후 조절이 가능해 최적의 운전 자세를 확보하도록 해주는 '텔레스코픽 스티어링 휠'이 적용돼 운전자의 편의와 상품성을 높였다.

지난해까지 선택 사양이었던 전복박자 사이드&커튼 에어백이 기본사양으로 바뀌었다. 차세대 차체제어장치(VSM),급제동경보장치(ESS) 등의 첨단사양은 그대로다.

시내 주행에서는 바뀐 터보 엔진에 묘미를 느낄 수 없었다. 답양 고속도로에서 가속페달을 깊숙이 밟았다. '윙'소리와 함께 터보엔진의 가동이 느껴졌다.

통상 가솔린 모델의 약점으로 꼽히는 토크에서도 나무랄 데가 없다. 이 차량의 최대토크



본보 기자가 지난 24일 오후 화순 도곡 들녘에서 '터보 GDI' 엔진으로 바뀌된 2011년형 스포티지R을 직접 주행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터보 GDI' 엔진.

크는 37.2kg·m로 40.0kg·m인 디젤 모델과 큰 차이 없다. 1800~3500rpm에서 꾸준히 35.0kg·m이상의 힘을 낸다는 점도 매력적이다.

최고출력은 261마력으로 184마력에 그친 디젤 모델보다 월등히 힘이 좋다. 2000rpm 이하에서도 거뜬히 시속 100~120km를 달릴 수 있다. 가속페달을 깊숙이 밟자 순식간에 시속 120→140→160→180km를 넘어섰다.



내부 운전석 모습.

연비는 다소 아쉽다. 4륜구동과 2륜구동 모델의 공인 연비는 각각 8.9km/ℓ와 11.2km/ℓ다. 터보 엔진을 단 모델인 만큼 연비가 다소 떨어지는 점은 감수해야 한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가격은 2륜구동 모델이 2075만~2710만원, 4륜구동 모델이 2579~2890만원이다. 같은 사양의 디젤 모델에 비해 100만~200만원 저렴하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자동차 연비표시 간간해진다

지식경제부 '5-Cycle' 방식 적용 추진

고유가 시대에 운전자의 기름 값 걱정이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가 자동차 연비를 실제 운행 상황을 가장 잘 반영하는 방식으로 표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최근 "자동차 연비를 계산하고 표시할 때 미국에서 활용되고 있는 '5-Cycle'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연비 표시 방식은 1975년 미국 로스앤젤레스 도심지역 차량 흐름을 반영한 'CVS-75' 모드로 단순히 시내 주행 상황만 반영돼 있다.

그러나 5-Cycle은 자동차의 작동 상황을 시내 주행뿐만 아니라 고속 주행, 급가속·급제동, 에어컨 가동 등, 외기 온도 저온(-7℃) 주행 등 자동차를 이용하는 모든 상황을 감안한 연비를 계산해 표시하는 방식

이다. 지금까지는 자동차를 몰고 시내를 다닐 때만 생각했다면 앞으로는 고속도로를 달리거나 급제동할 때, 에어컨을 켜고, 후방미러에 운전할 때 등을 모두 반영해 연비를 계산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시내 주행에 고속 주행 연비를 따로 산출한 뒤 이를 가중 평균하는 '콤바인드 모드'를 도입해 기본 연비를 계산하고서 보정식을 통해 5-Cycle 방식으로 연비를 표시할 예정이다.

정부가 새롭게 도입을 추진하는 5-Cycle 연비 계산법이 적용되면 연비가 기존 CVS-75 모드보다 5~10%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5-Cycle 연비 계산법을 적용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실제 자동차 시험 운행하며 우리나라 차종에 적용하기 위한 보정식을 계산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동차 소식

쉐보레 새 콘셉트카 공개

한국지엠은 24일 다음달 1일부터 열리는 '2011서울모터쇼'에 쉐보레의 새 콘셉트카 '미래(Miray)'를 세계 처음 공개한다고 밝혔다.

한국지엠은 이번 모터쇼에서 '쉐보레,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을 전시 콘셉트로, 3000㎡ 규모의 부스를 마련해 '미래'를 비롯한 17대 차량을 출품한다.

'미래'를 통해 쉐보레 브랜드의 미래 디자인 비전과 친환경 차량의 전형을 제시하고, 럭셔리 스포츠카 '콜벳'도 국내 처음 선보여 쉐보레 브랜드 이미지를 더욱 확고히 할 계획이다.

또 GM의 전기자동차 '볼트' 양산 모델도 국내에 첫선을 보인다. 볼트는 배터리 소진 후 추가 주행이 가능한 세계 최초의 전기차로, 지난 1월 북미 국제모터쇼에서 '2011 올해의 차'로 선정된 바 있다.

캠프는 현지 비정부기구(NGO)와 연계해 봉사활동, 주민과의 문화교류, 각종 세계적 이슈에 대한 토론, 환경을 주제로 한 현장학습 등의 프로그램을 구성한다. 신청은 다음달 10일까지 기아차의 참여형 블로그 '펄키아(www.funkia.kr)'로 하면 된다.

아우디 사진 공모전

아우디 코리아는 24일 다음달 1일 공식 개막하는 서울모터쇼에서 '2011 아우디 사진 공모전'을 연다고 밝혔다.

모터쇼 현장에서 아우디의 모습

SM7 콘셉트 렌더링 공개

을 사진에 담아 다음달 1~17일 1인당 2점까지 공모전 사이트(photocontest.audi.co.kr)에 출품하면 된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나 출품작은 1인당 2점으로 제한된다.

입상작은 네티즌 투표와 아우디 코리아 내부 심사 결과를 합산해 결정된다. 1등에게는 라이카 카메라, 2등에게는 아우디 손목시계, 3등에게는 고급 카메라 가방이 부상으로 주어진다.

르노삼성자동차는 최근 올 하반기 출시하는 SM7 후속 모델의 쇼카 버전인 'SM7 콘셉트'를 내달 초 열리는 '2011 서울모터쇼'에서 처음으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르노삼성자동차는 최근 올 하반기 출시하는 SM7 후속 모델의 쇼카 버전인 'SM7 콘셉트'를 내달 초 열리는 '2011 서울모터쇼'에서 처음으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르노삼성은 이 차의 렌더링(3차원 컴퓨터 그래픽) 이미지를 공개했다.

'SM7 콘셉트'는 르노-닛산 일라이언스를 통해 개발한 준대형 세단으로, '턱시도를 입은 남성(Man in Tuxedo)'을 디자인 콘셉트로 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CBS Multimedia Group



Beyond CBS!

방송, 그 이상의 멀티미디어 CBS*

희망의 메시지와 건강한 여론이
CBS 멀티미디어 세상에 있습니다.



2010 CBS 캠페인·나누면 희망이 됩니다.

